

목포해양대 실습선 안전관리 '엉망' 전남교육청 선상무지개학교 '불안'

CCTV 6대 모두 고장 방치 실종 실습생 사망 원인 못밝혀 매년 70여일 국내외 항해 비상

수 백 명의 학생(실습생)들을 싣고 매년 수 십 일간 국내·외 항해를 하는 목포해양대 실습선의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항해 선박에 대한 안전이 선결 과제라 떠오른 가운데 학생들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대학조차도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 선박은 매년 전남지역 중학생 200여명을 태우고 보름간 국내·외 항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와 목포해양대에 따르면 실습선 '새유달호'에 설치된 6대의 CCTV가 모두 고장 난 채 방치돼 있다.

목포해경은 앞서 지난달 24일 3466급 실습선인 새유달호에 승선해 항해 실습을 하던 목포해양대 3학년 A(24)씨가 실종(광주일보 9월25일자 6면)된 후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고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새유달호에는 선박 외부 통로, 함교 등 6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선박은 지난 1993년 10월 건조 이후 운항을 해왔으며, 목포해양대 측은 지난 2003년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

만약 CCTV가 제대로 작동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됐다면 A씨가 바다에 빠진 직후 바로 구조할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특히 목포해양대는 CCTV가 정확히 언제 작동을 멈췄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해양대가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의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지역 중학생들도 매년 이 선박을 타고 일본, 중국 등을 다녀오고 있다.

해경은 "CCTV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고 경위를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유달호는 실종 사고가 발생한 날 항해 사무를 학생지도관이 겸직했으며, 실종 사고가 발생한 직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해경에 신고하는 등 전후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양대 관계자는 "학생지도관이 3등 항해사 자격 조건을 다 갖춰 문제가 없다"며 "CCTV가 언제 작동한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편의상 설치해 놓은 것으로 CCTV가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목포해양대는 새유달호와 새누리호 등 2대의 실습선을 보유하고 있다. 실습선은 각각 매년 70여일간 항해를 한다. 새유달호는 올해 전반기 45일 20시간, 하반기 32일 등 77일 20시간의 항해(항해 53일 6시간, 정박 24일 14시간)할 계획이다. 목포를 출발 마닐라~봉타우~산아를 거쳐 다시 목포로 회항하는 일정과 목포를 출발해 상하이~나가사키를 거쳐 목포로 회항하는 일정 등 해외 항해도 포함돼 있다.

특히, 목포해양대 실습선이 전남도교육청의 선상무지개학교 선박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새유달호와 새누리호

를 이용해 지난 2011년부터 선상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28일 전남지역 중학교 2학년 209명과 교원 33명이 실습선을 나눠 타고 일본과 중국으로 항해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도에 이 행사를 열기로 하고 12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다.

올해 선상무지개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한 학부모는 "중학교 2학년이면 전방지측인데 CCTV가 모두 고장 나 위험한 행동을 확인할 수 없으니 아찔하다"며 "수 백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성폭력 전담경찰이 피해자 성폭행

순천경찰 경위 체포 조사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사적으로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금지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자신이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강간)로 순천경찰서 A(47) 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해자 진술이 상당부분 확보됐고, A경위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 경위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지난 2일 새벽 1시에 인근 모텔로 들어갔으며, 4시간여 흐른 5시에 B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2에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 확인한 결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순천경찰서 성폭력 전담 수사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A 경위가 지난달 중순부터 B씨의 성추행 피해 신고 사건을 맡아 수차례 소환조사를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A 경위는 그러나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절대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위반으로 보고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세웠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성범죄 우범자 10명 중 1명 소재 파악 안돼

광주·전남 우범자 총 1286명

광주와 전남지역 성범죄 우범자 가운데 10명 중 1명꼴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운(광주·성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광주와 전남의 성범죄 우범자는 각각 470명과 816명으로 총 1286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49명, 전남은 8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범자는 경찰이 성범죄 전과자 중 3개월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 의원은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우범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성범죄 우범자 선정과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9층 투신 여고생 주차장 뒤편으로 추락 목숨 건져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한 여고생이 지하주차장 뒤편에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4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18분께 목포시 한 아파트 9층에 사는 A(18)양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자신의 방에서 뛰어내렸으나 지하주차장 뒤편에 떨어져 화단으로 구르면서 목숨을 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날 아버지와 다룬 후 우발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낙찰 받아놓은 포도 120 박스 훔쳐 생활비로 쓴 60대



대목민 추석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농산물 중개인에게 접근, 경매로 낙찰받아 놓은 포도 100여 박스를 훔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한 60대 경찰서생.

4일 광주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문모(60)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수산물공판장에

서 중개인 A(여·56)씨가 경매를 받아 놓은 80만원 상당의 포도 120상자를 훔쳐 전주 시내에서 팔아넘긴 혐의.

문씨는 추석을 앞두고 A씨와 몇 차례 거래를 하며 신뢰를 쌓은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몇 년 전 암수술을 하고 홀로 어렵게 살다가 명절을 앞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김경민기자 kki@

싸운다고 내쫓기자 술집 여주인 살해

광주서부경찰, 5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4일 흥기를 휘둘러 술집 여주인을 살해하고 또 다른 술집 남자 종업원을 다치게 한 이모(52)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밤 11시 45분께 서구 농성동의 한 술집 주변 공터에서 술집 여주인 권모(53)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또 20여 분이 뒤인 2일 자정 무렵 화정동의 또 다른 술집에서 종업원 김모(5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권씨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룬다는 이유로 권씨가 밖으로 내쫓자 인근 술집에서 흥기를 가져와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화정동의 한 술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 종업원 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며 대치하다가 경찰에 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농성동 술집 주인 권씨는 날 내 쫓았고, 화정동 술집 종업원 김씨도 며칠 전 나를 술집에서 내쫓았다. 하지만, 누구도 내게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채업자에게 뇌물 받은 경찰들

전 광양경찰 2명 구속 등 4명 잇따라 적발

전남지역 경찰관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전 광양경찰서 소속 A(46)경위와 B(46)경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와 B 경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광양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채업자 C씨로부터 각각 1000~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

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C 씨로부터 1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양경찰서 소속 D경사와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여성경찰서 소속 E경위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내부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 A 경위와 B, D 경사를 파면한 데 이어 E 경위는 1계급 강등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화복합시설 · 펜션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처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정가 - 30억
-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구/벽스바) 서평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층 120평, 전방최고/4면유리 모든 업종 오픈 가능
- 시세/감정가 - 7억
- 매매 - 5억 8천만원(법인체 인수 가) 대출 - 3억 6000만원(이자 130만원) 임대 - 보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임대중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최고 수익률!

주인직매 H. 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 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임경비 등등 1200만원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1억원 이상 수익률-연 20% 이상

(주)오천경매 H. 010-3505-5000